

(사)자평 고려인마을 의료봉사



(사)자평(이사장 김수근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은 최근 풍암다일교회 의료선교단 올리브트리와 함께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사)자평 제공>

호남대 창업교육센터 대학생 제품 발표회



호남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김광택)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학생 예비 창업자 개발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호남대 제공>

손보 호남본부, 보성경찰에 형광조끼 전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부장 김양식)가 최근 교통약자배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보성경찰(서장 광영진)에 노인용 형광조끼 100벌을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제공>

인사

◆동신대 ▲문화관광대학장 정철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오종근 ▲학생취업지원처장 겸 동신사회봉사 부단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김수근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장 최진봉 ▲동신대 순천한방병원장 최창원 ▲IPP사업단장 전진 ▲교무처 IPP센터장 겸 현장교육지원센터장 조중현 ▲교무처 교수학습센터장 겸 교수지원부장 이성주 ▲학생취업지원부처장 겸 학생생활관장, 대학창조일자리부처장 겸 겸재학생지원센터장 양일승 ▲공대 교학과장 국찬 ▲인문사회대 교학과장 오성록 ▲보건복지대 교학과장 이종철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박승순·오정선씨 차남 지원군 황현택(광주시 서구의회 의장)·윤점순씨 장녀 유나양=5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를. ▲이다복씨 아들 주홍근 손영만씨 동생 지현양=5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더케이웨딩홀(구 광주교직원웨딩홀) 3층 예식홀. ▲조정훈(경찰방송신선사)·고금희(한평우체국)씨 장남 광선(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군 전영식·김순애씨 장녀 수빈양=3월13일(일) 낮 12시 광주시 서구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를.

종친회

▲전주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제38회 정기총회=5일(토)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5631. ▲전주씨대 광주정장병회(회장 강대철) 3월 정기모임=7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동해바다 062-224-4844. ▲경주씨대 광주·전남총회 재광 이사회=7일(월)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47가 맛집 한겨레 문의 010-6455-6296. ▲전주씨대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회장 이승암) 월례회=8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문회

▲장성 삼서초(광일회) 26회 동창회(이계근)=3일(목) 낮 1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진도회관, 문의 010-7704-6327. ▲광주 사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4일(금) 오후 5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목포식당 062-528-7875.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7일(월)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강신식당 062-224-0808.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언) 2016년 제1차 정기이사회·한마음대축제 동문초청 만찬회=8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062-366-7766, 문의 유은학원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알림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홍보서포터즈=자원봉사활동현장 취재와 홍보 등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과 일반시민, 31일(목)까지 20명 모집, 문의 062-228-1365. ▲(사)장애인복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구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부음

▲김성남씨 별세 장송식(광남일보 정치부 부장대우)씨 방부상=발인 2일(수) 광주시 만평장례식장 B103분향실 062-611-0000. ▲권인택씨 별세 경안(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장)씨 부친상 김일섭(푸팅클럽 본부장)·최대봉(광주도시철도공사 과장)씨 방부상=발인 3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반쪽’ 찾아준 3·1 마라톤 계속 뛰어아쇼”

2014년 대회서 연인 발전 김창현·김선영씨 커플

지난해 하프코스 이어 올해 나란히 풀 코스 완주 전남대생 선영씨 수능 재도전 남친 있는 한체대로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빠놓지 않고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대회니까요.” 1일 열린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김창현(22)·선영(여·22)씨 커플이 풀코스를 완주했다. 하프코스에서 참가했던 지난해처럼 나란히 끝까지 달렸다(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를 통과했다. 공식기록은 4시간53분22초. 선영씨는 결승점을 통과하자 울라 울음을 터트렸다. 42.195km를 달려며 겪었던 역경이 머릿속을 스쳤다. 완주를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대단스럽기도 했다. 선영씨와 손을 맞잡고 달렸던 창현씨도 감격스러웠다. 둘은 꼭 끌어안은 채 서로 격려했다. 이들에게 3·1절 마라톤대회는 ‘인연의 고리’다. 지난 2014년 10km 코스에 참가하면서 연인이 됐다. 당시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20살의 창현씨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알게 된 친구 선영씨에게 고백할 방법을 찾다가 마라톤대회 참가를 제안했다. 둘은 마라톤 완주를 핑계로 대회 한 달 전부터 등산과 자전거타기 등 훈련을 병행한 데이트를 함께했다. 이후 창현씨가 마음을 고백했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청춘커플’은 지난해 3·1절 마라톤대회 참가 1주년을 기념해 하프코스에서 참가, 완주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자신감이 붙자 올해는 풀코스에서 도전하게 됐다. “어제가 만난 지 700일이었어요. 대회참가도 2주년

을 맞았고 이를 기념해 양말이랑 신발, 옷까지 커플로 다 맞춰줍니다.” 선영씨는 “첫 풀코스에서 도전했는데, 하프코스를 땀 때보다 5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손을 꼭 잡고 함께 달려줘서 완주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창현씨와 선영씨는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청춘커플은 느낄 수 없는 애뜻함과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탓에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둘 사이엔 마라톤에서 얻은 든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또래 커플들과 달리 사소한 다툼도 없다고 한다. 함께 달리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사랑도 두터워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 다니던 선영씨는 창현씨와 같이 있고 싶어 지난해 수능시험을 다시 치렀다. 창현씨가 다니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젠 장거리 연애가 아닌 가까이에서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이른바 CC(커플스커플)가 된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 날씨는 3월1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1절 마라톤대회에서 완주한 뒤 결혼식장으로 곧장 끝낼까봐요.”(웃음) 창현씨와 선영씨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며 “3·1절 마라톤대회는 빠놓지 않고 함께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창현·김선영씨 커플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를 완주한 뒤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세돌, 알파고 이긴다에 100% 걸겠다”

중 바둑랭킹 1위 커제 9단

중국 바둑랭킹 1위인 커제(사진) 9단이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에 내기한다면 이세돌 9단이 이긴다는 데 100%를 걸겠다고 밝혔다. 커제 9단은 1일 중국 상하이 상하이그랜드센터호텔에서 열린 제1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기자회견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에 배팅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세계 최강 기사로 인정받은 이세돌 9단이 오는 9일부터 인공지능 알파고와 5번기를 벌이는 것은 이번 농심배 기자회견장에서도 화제에 올랐다. 한·중·일 바둑 대결인 농심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한국 기사가 바로 이세돌 9단이기 때문이다. 커제 9단은 “저에게 100위안이 있다면, 이세돌이 이긴다고 확신하고 100%를 걸겠다”고 말했다. 커제는 지난해 11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준결승에서 이세돌 9단을 꺾고 결승에 올라 우승했고, 지난 1월에도 몽백합배 세계바둑오픈 결승에서 이세돌 9단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 세계 바둑계 세대 교체를 둘러싼 대결 구도를 만든 주인공이다.



그는 이번 농심배에서도 이세돌 9단과 맞대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날은 이세돌 9단의 실력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 달 신화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도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5대 0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커제 9단은 “그 인터뷰를 했을 때는 알파고의 기보를 깊게 연구하지 않았을 때다. 알파고가 (유럽챔피언인) 판후이를 이긴 결과를 봤을 때 5대 0으로 이겼다고 판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언론 보도를 보니 알파고도 매일 공부하고 바둑 실력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 알파고도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다”며 알파고의 실력과 성장에도 놀라움을 표했다. 커제 9단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큰 점수 차로 끝날 것”이라며 “첫 판이 제일 중요하다. 첫 판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노안영 전남대 교수 ‘불완전할 용기’ 펴내

우리나라 아들의 심리상담의 권위자로 꼽히는 전남대 노안영(심리학과) 교수가 아들의 지혜를 오롯이 담은 ‘불완전할 용기’(도서출판 솔과학)를 펴냈다. 노 교수는 이 책에서 아들의 개인심리학을 재해석해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제시한다.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격려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라’로 요약된다. 상담에 관한 연구를 40여 년간 진행해온 저자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격려를, 타인에게 격려를, 그리고 더 나아가 조직이 조직에게 격려를 보내자”고 호소한다. 그것은 또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격려는 사람을 춤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수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엄마의 메아리’전

7일부터 경북 객주문학관

이수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오는 7일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객주문학관에서 기획 초대전 ‘엄마의 메아리’를 진행한다. 이씨는 이번 초대전에서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전국에 있는 5일 장터 535곳을 돌며 촬영한 사진들을 선보인다. 동이 뜨는 장터와 보따리를 들고 장터로 이동하는 상인들의 모습부터 파장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버스에 몸을 싣는 모습 등 장터의 일상을 스케치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장터 바닥에 보따리를 펴고 장사를 하는 어머니들의 삶을 기록했다”며 “잊혀져 가는 시골 5일장터 고유의 정과 문화를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54-873-8011. /박기용기자 pboxer@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listing names and dates for various services.